

『아버지 役割』이 없어졌다

바깥일 핑계로 家庭에선 무기력 큰소리 보단 작은일부터 관심

회사원 H씨(40)는 최근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 미혼 시절에 그 아내를 보며 고졸 언짢았던 기억을 찾았다. 그녀의 주제는 '아빠의 모습'이다. 아버지가 그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도 소파에 누워 드려닝을 하는 것이었다.

아들이 서른 셋으로 그 린 그녀는 마치 '그림'에 들어 있는 아내를 그리며 린갈았다. 색깔도 보라색

본는 것이 아이를 보통 어린아이를 볼만하게 만들 때를 너무 많이 한다. '전'에 너무 늦게 들어오다 보니...

우리 사회의 전통문화가 무너지면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 문제 는 어머니의 손으로 넘어 가버린지 오래다. 자녀들도 고민을 함께 나눌 상대에 서 아버지를 제외시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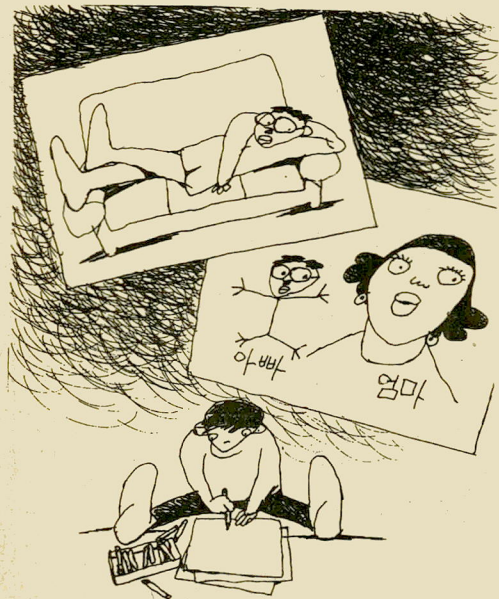
과감해 계층의 인두운 색 조였다.

아내: "그거 보세요. 집 에 들어오면 언제나 피곤 하다고 누워있었으니 애가 그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반장해야 하면 안 되고 말했 다."

H씨는 매일 아침에 잠 들었을 때 집을 나서다 시 아들이 잠들어있는 시 간에 귀가한다. 그것도 자 주 술에 취해서... 그리고 일요일마다 거리의 사람 들과 어울린다.

서울江南구 대峙동 문테 소리아가방 유아원 미술 지도교사 孫弘民씨(33)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에게 가족의 모습 을 그려보라고 하면 엄마 의 모습은 크게 그리고 아 빠는 그렇게 작게 그려나 다. 또 엄마의 모습이 動的인데, 아빠의 모습 은 靜인 것 같다. 잠을 자거나 운전대를 잡고있거 나 앉아서 TV나 신문



<그림> 白實洙

<자문위원>

- | | |
|-------|---------------------|
| 朴 惠 蘭 |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공동대표) |
| 嚴 圭 白 | (양정고교 교장) |
| 李 完 周 | (서울중평국교 교장) |
| 李 元 寧 |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
| 片 光 範 | (서울고교 교장) |
| 韓 駿 相 |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

<특별취재반>

- | |
|-------------|
| 澤 先 德 剛 秀 宰 |
| 鎬 揆 順 淳 然 院 |
| 黃 沈 金 洪 申 李 |

은 『아빠가 딸의 꿈을 꾸 어려고만 하지 말고 말없이 믿어주었으면 좋겠다』 아 버지는 권위를 내세우지만 자신들에게 소외당하고 있 을 뿐이다. 그런 아버지 가 애처로워 보인다』고 썼 다.

S영고 2년 차양(18)은 『아버지는 나에게 "학수

%를 뽑았고 아버지는 팔 지인 9.1%였다.

홍사단에서 만난 남고 교생들이 일명 '조아'로 알려진 14.6% (현재자매) 13.6 H영고 1년 차양(17)

수범 사례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이긴 이들을 가진 이새 단체는 동화작가 康鳳鉉씨

『좋은 아버지』 모임

하숙생 위치 탈피 方定煥되자
3百명가입 20계명 실천운동

(39)가 『아버지가 쓰고그 린 그림책』 강좌에 참석 한 평범한 아버지 13명을 주축으로 조직했다.

이 단체는 『모든 아버지 가 方定煥이 되자』는 구호 아래 가정에서 하숙생 취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다. 너무 성직에 대해 압 령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한 남학생이 『아버지 집안 은 좀더 평범해질 필요가

<특별취재반>

동화작가 康鳳鉉씨는 『아 버지들이 잃어버린 父權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큰소리 보다는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들의 작은 일에 관심을 갖는 일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 한다.

마속의 대발이 아버지를 대하듯 아버지 앞에서 설 설 기고 산다. 아버지는 술 기운을 빌려서 친구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평소 못하 던 이야기를 하고 엄마 와 싸우기도 한다』고 불평 했다.

한 여학생은 『외박이 무 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딸 자신에게도 불가피한 외박 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 버지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국민 학교에서는 소외된 아버지 들을 다시 교육의 현장에 불러들이는 프로그램은 다 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아버지 참관의 날』에 모 처럼 유치원에 들린 아버 지들이 다소 쑥스러워 표 정으로 자녀들과 어울려 『아기용품들린』의 노래 에 맞춰 춤을 추고 과자파 머기를 자꾸기 등의 놀이 를 하는 모습은 일반화된 풍경이다.

一般廣告
問
361-0792~6
FAX.361-0439

브를도 멋진 방법이다. 이 모인들부터 『좋은 아버지』를 받든 서울 동 부경찰서 남구의파출소 韓 普求경장(36)은 『내 아이와 함께 다른 아이에게도 사 랑과 꿈을 나눠주고 내 가 정뿐만 아니라 사회에 서도 사랑을 하는 아버지 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